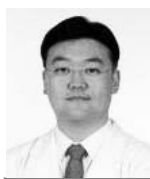


건강 칼럼

3D 데이터 기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나 이가 들수록 차이는 약해 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차이가 상실되거나 손실되게 된다.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대중화돼 많은 사람이 하는 만큼 안전 시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절단 장비가 발전하지 못해 의료진의 감각이 가장 중요했으나, 현재는 절단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여주고 있다. 임플란트는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상실하거나 탈락이 필요한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시술로 치아와 구조 및 기능이 거의 같으며 심미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아직 임플란트수술 경험이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통증에



이 창 규
광남대학교병원장

대한 부담감과 이물감과 일상생활은 가능할지 등 고민이 될 수 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이 가능한지,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을지 등 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민거려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시술법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다. 디지털 3차원 CT 장비를 활용해 잇몸의 결핵없이 눈에 보이

지 않던 잇몸 뼈의 상태를 실제 영상으로 확인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정확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식립 각도와 위치, 깊이까지 mm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 식립하는 방식이며, 환자 개인별 맞춤형 진단 및 시술이 가능하다.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증 및 부작용 발생을 줄여줄 수 있고 기존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 정확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모든 시술 과정을 정확한 계획 하에 진행기 때문에 수술시간이 30분 이내로 짧고, 평균 내원 횟수 3~4회로 상대적으로 적어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여러 번의 모의시술을 거쳐 시술계획을 세워 진행하므로 수술 전후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 고통의 환자들에게 알맞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식립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전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설정한 다음 정확하게 수술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자연치아 소실 후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사설
전북도의 기업유치 '순항' 발표에 말한다

전북도가 올해 상반기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 '순항'을 말했다. 73개 기업에 6천3백여억 원에 달하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일자리 3천5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도 4천4백만 불을 달성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좀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짚어볼 게 있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겠다. 기업유치 작업이 활발하다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지난 수년간 보여준 기업 유치 실적표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도내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환경도 열악하다. 그 까닭을 말하려면 실제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그 이유의 하나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게 생각난다. 기업유치 효과라는 게 기대치만 높였을 뿐, 실속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

북도는 그 추진하는 바가 확실해야겠다. 그리고 유치된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도움을 줄 계획도 세우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이쪽으로 데려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양해 각서를 교환한 기업들이 많다고 낙관해서 안 된다. 전북도가 지난 날 한 때 보고했던 유치 실적을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얼른 생각해 그때의 유치는 대단한 거였다. 1조원에 가까운 수천 억원의 거액이 투자될 예정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4천 명을 상회할 거라고 보고 했었으니 말이다. 그게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해도 다시 생각해보면 쓴 웃음이 나온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 무렵 투자 규모에 대한 후속 기사가 실상을 밝혀주었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지적했던 것을 다시 지적하고자 한다. 전북도는 올해 미취업 젊은이들에게 희소식을 들려 주어야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기업 유치 작업을 확실하게 전개해 달라 는 당부이다.

독자재언

몰래카메라범죄 추방해야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남학생이 잠입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는 등 몰래카메라범죄(이하 몰카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지역의 대학가 여자 화장실을 둘러싼 소동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범이 발생하고 있지만 숙박방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몰카범 건수가 4,491건에 달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몰카범 처벌에 대한 강력 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은 몰카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범 처벌은 카

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된 사회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소장 또는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라 할 만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몰카범의 피해자, 내 여성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연인이 될 수도 있다. 이상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오늘이 같은 독-불 정상



19일 독일을 방문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를린 북쪽의 영빈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EU의 두 기둥인 이들은 국내 정치에서 상당한 곤경에 처해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용률 저조 현상이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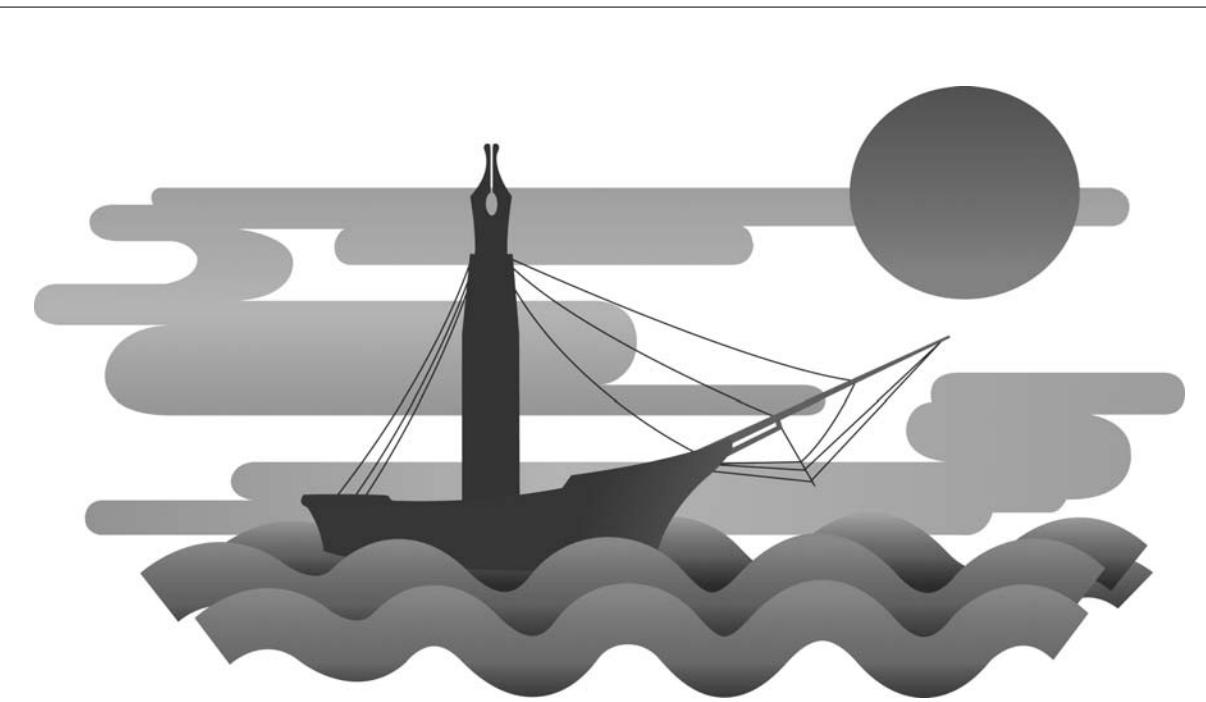
우리 지역의 경제 신호등이 늘 빨간불이다. 고용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부끄러운 기록을 과연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매년 반복되는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닌데 말이다. 우리 지역의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대서는 공란하다. 전북도는 권세 숙선수행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계를 많이 보여주어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하기에 하는 말이다. 지역의 고용열기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물어 물어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전북도는 스스로 브람을 보이는 가운데 각 시군 지자체를 독려해 고용 열기를 뜨겁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이 예전보다 못한데다 편잡은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밀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는 도내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일자리 때문에 한숨이 하는 도내 청년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기회만 주어준다면 전북 지역을 아예 떠나려고 한다고 말이다. 전북도는 비정규 일자리를 두고 불안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또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 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신성성이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그 얼마나 계속돼야 하는가. 전북도는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끄러운 성적표 앞에서 이마를 짚고 생각이 많아져야 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